

SERI 경제 포커스

2011. 11. 15. (제357호)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 소득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목차

FOCUS	1
1. 노인 1인 가구 현황	
2.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변화와 특징	
3. 정책과제 및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2
경제일지	13
경제통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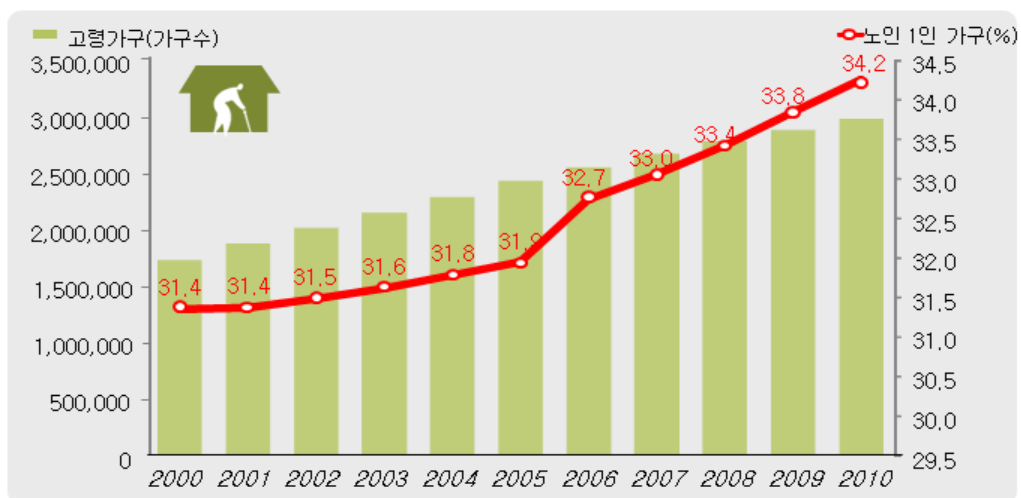
작 성: 김정근 수석연구원
(jkun.kim@samsung.com)
02-3780-8384

1. 노인 1인 가구 현황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인구고령화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수는 2000년 173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증가
 -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2.8%p 상승
 - 고령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의 비중: 31.4%(54만 가구, 2000년)→34.2%(102만 가구, 2010년)
- 노인 1인 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고령화 시대의 정책적 관심집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총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의 비중 변화 전망: 6.0%(102만 가구, 2010년)→8.0%(151만 가구, 2020년)→11.8%(234만 가구, 2030년)

고령가구 및 노인 1인 가구 비중 변화(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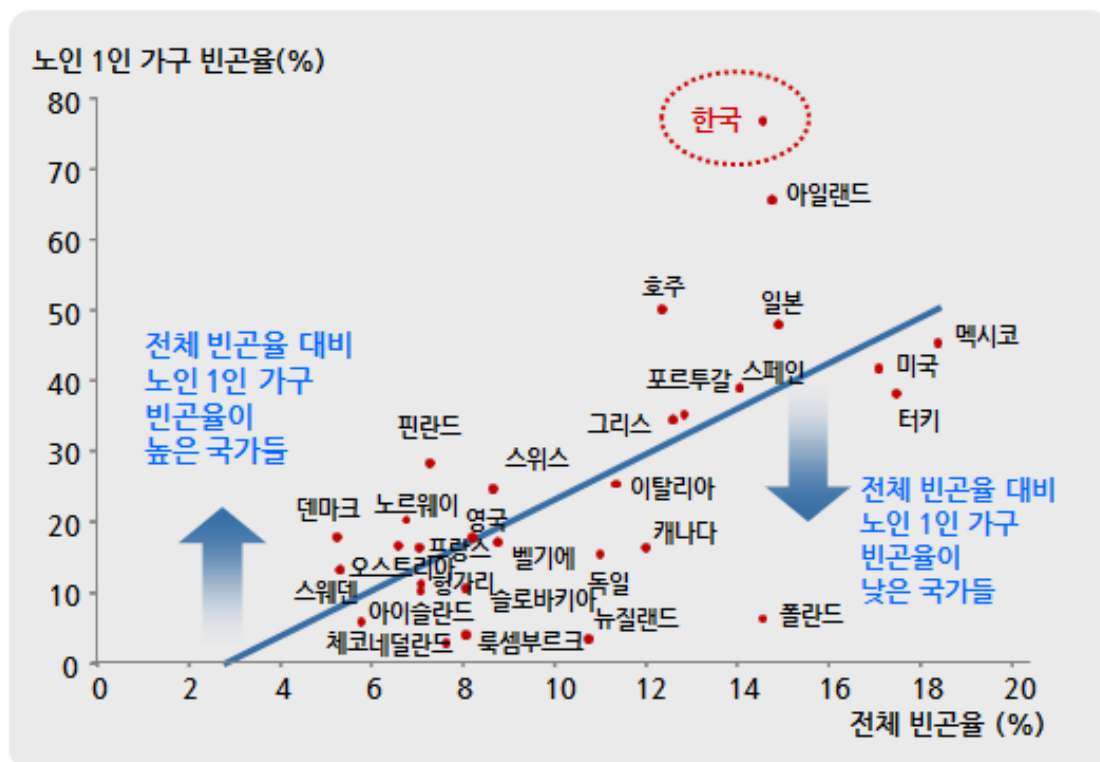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1). "2011 고령자통계."

빈곤율이 높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한국의 노인 1인 가구는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 시대 노인소득보장의 핵심 그룹으로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한국의 노인 1인 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스웨덴의 6배, 미국의 2배, OECD 평균의 2.5배 수준
 - 한국 전체 빈곤율이 14.6%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 (76.6%)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
-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전체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65세 이상 전체 고령층의 성별 빈곤율 차이: 여성(47.2%)⇔ 남성(41.8%)

노인 빈곤율의 국가 간 비교



구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전체 빈곤율
	65세 이상	성별		가구 구성		
		남성	여성	노인 1인 가구	부부노인	
벨기에	12.8	12.7	12.9	16.7	10.0	8.8
캐나다	5.9	3.1	8.1	16.2	3.9	12.0
프랑스	8.8	6.6	10.4	16.2	4.1	7.1
독 일	8.4	5.1	10.8	15.0	4.7	11.0
이탈리아	12.8	8.1	16.1	25.0	9.4	11.4
일 본	22.0	18.4	24.8	47.7	16.6	14.9
한 국	45.1	41.8	47.2	76.6	40.8	14.6
멕시코	28.0	27.6	28.5	44.9	20.9	18.4
스페인	22.8	20.1	24.7	38.6	24.2	14.1
스웨덴	6.2	4.2	7.7	13.0	1.1	5.3
영 국	10.3	7.4	12.6	17.5	6.7	8.3
미 국	22.4	18.5	26.8	41.3	17.3	17.1
OECD 평균	17.1	14.5	19.2	30.7	13.3	11.9

주: 1) 1인 및 농가 포함

2) 빈곤율은 OECD 기준인 전체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 50% 이하로 정의

3) 위 자료는 각국의 2000년 중반 자료를 OECD에서 종합하여 2011년 발표
자료: OECD (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2.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변화와 특징¹⁾

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60~70% 수준에 불과

□ 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노인가구 소득보다 낮은 60~70% 수준이지만, 남성노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그 비율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

- 전체 노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비율 증가: 60.2%(2005년)→66.5%(2009년)
- 노인 1인 가구 소득 개선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

¹⁾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2005, 2007, 2009)을 이용하여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전국의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1차 조사 시 5,110가구, 2차 조사 시 5,150가구, 3차 조사 시 5,209가구를 조사한 자료로 한국 중·고령층의 노후소득생활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국가통계. 본 보고서는 2005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가구소득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여 분석

- 남성노인은 전체 노인가구 대비 1인 가구 소득 비율이 2005년 56.1%에서 2009년 94.2%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성노인은 2005년 67.2%에서 2009년 65.3%로 오히려 감소
 - 이는 남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여성 고령층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2005년→2009년): 남성 49.7%→50.3%, 여성 28.1%→27.3%²⁾
-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에 비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의료비 지출을 감안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
- 전체 노인 가구는 55.6%가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반해, 노인 1인 가구는 70.2%가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³⁾

노인 1인 가구와 전체 노인가구 연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 원, %)

	노인1인 가구(A)			전체 노인가구 (B)			비율(A/B)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05	637.7	677.2	631.8	1,059.6	1,207.1	940.8	60.2	56.1	67.2
2007	802.9	1,056.9	760.8	1,141.5	1,209.4	1,089.0	70.3	87.4	70.0
2009	819.8	1,288.2	736.0	1,232.9	1,367.4	1,126.6	66.5	94.2	65.3

주: 1) 가구 소득 수준은 OECD 가구균등화지수 사용: 균등화가구소득=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
 2) 소득은 가구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 소득 등을 포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낮은 소득 수준과 소득 증가율

-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 수준과 소득 증가율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노인 1인 가구보다 낮은 실정

²⁾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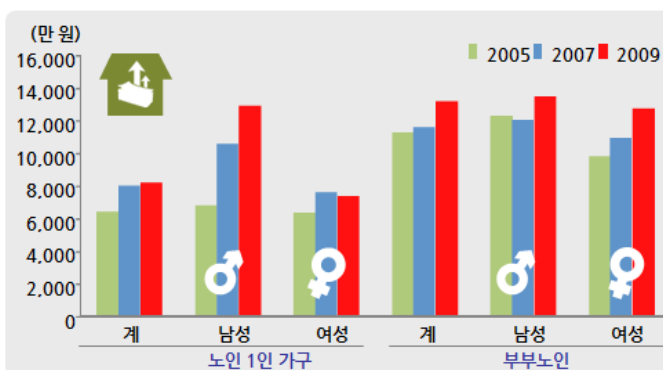
³⁾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2009년 현재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남성노인 1인 가구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⁴⁾의 60% 수준
-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736만 원, 남성노인 1인 가구는 1,288만 원,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는 1,273만 원
- 여성노인 1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 소득 증가율의 약 2분의 1 수준
- 여성노인 가구소득 증가율(2005~2009년): 16.5%(노인 1인), 30.0%(부부노인)
- 이는 여성노인의 남성에 대한 강한 경제적 의존성에 기인한 것으로, 배우자 존재 여부가 여성노인의 경제 수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낮은 소득 증가율은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79.9%로 전체 노인가구 중 여성노인 1인 가구의 59.5%를 크게 상회⁵⁾
-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 증가: 484만 원(2005년)→500만 원(2009년)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변화 연간 가구소득 변화율(%)



구분		2005-2007	2007-2009	2005-2009
노인 1인 가구 (%)	계	25.9	2.1	28.8
	남성	58.1	21.9	90.2
	여성	20.4	-3.3	16.5
부부노인 (%)	계	3.2	13.6	17.3
	남성	-1.7	11.8	9.9
	여성	11.7	16.4	30.0

주: 소득 수준은 OECD 가구균등화지수사용: $\text{균등화가구소득} = \text{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⁴⁾ 여성노인의 가구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노인 가구소득을 '혼자 사는 여성노인', '혼자 사는 남성노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성노인'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분석

⁵⁾ 통계청(2011). "2010년 가구주택총조사."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심화

□ 노인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음

- 전체 노인 1인 가구의 71%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고령층의 학력 수준이 후기 고령층의 학력 수준에 비해 높음
- 초등학교 이하 학력 비율: 90% (85세 이상 노인) ⇔ 46.3% (60~64세 노인)
- 노인 1인 가구의 남녀 간 학력 차이가 두드러지며, 후기 고령층일수록 학력 수준 차이는 심화
- 남성노인 1인 가구는 44.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성노인 1인 가구는 79.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유
- 85세 이상 여성노인 1인 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94.0% 차지

노인 1인 가구의 교육 수준



자료: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 1인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도 낮았으며, 최근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 간의 소득 격차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심화
-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노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 1인 가구의 2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
 - 2009년 연가계 소득 766만 원(초등학교 이하)⇔1,712만 원(대학 이상)
 - 2007~2009년간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변화를 보면,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노인 1인 가구의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노인 1인 가구의 가계소득이 감소
 -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 1인 가구는 연간 가계소득이 2007년 907만 원에서 2009년 955만 원으로 3.3% 상승
 - 고학력층의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는 2007~2009년간 점차 증가
 - 2007~2009년에는 학력별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소득 비율이 고학력층일수록 악화되어 '초등 이하'는 1.4%p, '대학 이상'은 17.9%p 하락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배우자가 있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노인 1인 가구와 부부노인 가구의 교육 수준별 연간 가구소득 비교

(단위: 만 원, %)

구 분	노인 1인 가구(A)				부부노인 가구(B)				비율(A/B)			
	계	초등 이하	중 고등	대학 이상	계	초등 이하	중 고등	대학 이상	계	초등 이하	중 고등	대학 이상
2007	802.9	744.3	907.1	1,987.0	1,195.5	981.0	1,338.9	2,250.0	67.2	75.9	67.7	88.3
2009	819.8	766.5	954.8	1,712.3	1,289.4	1,028.5	1,500.3	2,430.7	63.6	74.5	63.6	70.4

주: 소득 수준은 OECD 가구균등화지수 사용: $\text{균등화가구소득} = \text{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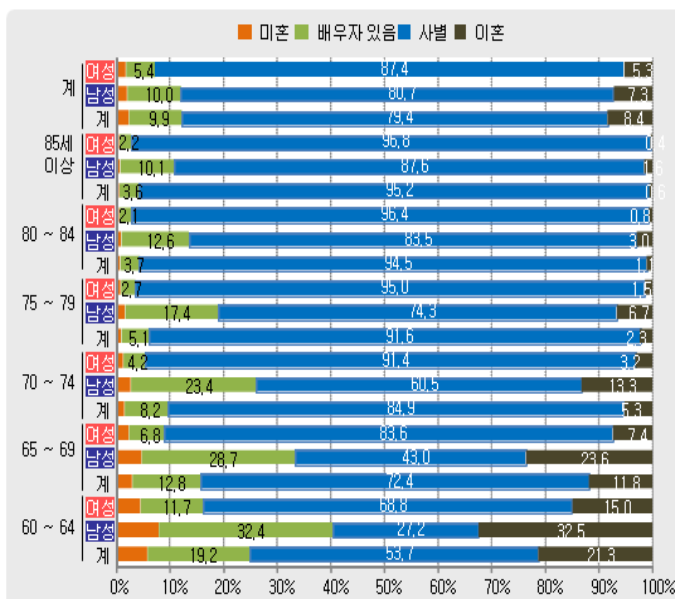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여성노인은 배우자 사별 후 홀로 살아가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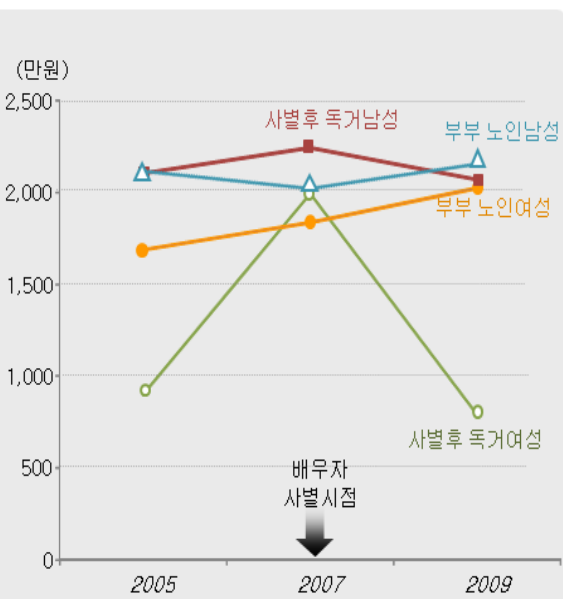
□ 노인 1인 가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여성과 후기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별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사별 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

- 여성노인 1인 가구는 10가구 중 9가구가 배우자와 사별해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 1인 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가 사별을 경험
-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로 홀로 남은 고령층의 비율이 상승하는데, 특히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음
 - 7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약 92% 이상이 사별을 경험하였으며, 80세가 넘으면서 여성노인 1인 가구의 96.8%가 사별 이후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여성은 배우자 사별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매우 높음
 - 사별 후 소득 변화: 900만 원(2005년)→1,980만 원(2007년)→780만 원(2009년)
 - 배우자 사별시점의 일시적 소득 증가는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 증가로 예측

노인 1인 가구의 연령별 혼인 상태



배우자 사별 후 소득 변화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국민노후 보장패널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3. 정책과제 및 시사점

- 부부노인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노인 1인 가구를 노인빈곤정책의 표적집단으로 설정할 필요
 - 노인층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노인 1인 가구 수는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고령가구 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중 변화: 34.2%(102만 가구, 2010년)→35.7%(151만 가구, 2020년)→36.5%(234만 가구, 2030년)⁶⁾
 - 특히,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기대수명 격차가 증가하고, 자녀들의 부모 부양의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배우자 사별 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전망
 - 65세 여성의 기대수명과 남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1999년 3.9년에서 2009년 4.5년으로 증가
 - 부부의 연령 차이가 평균 3년이므로 65세 아내가 남편 사별 후 홀로 살아가야 할 기간은 약 7.5년으로 추정⁷⁾
- 홀로 사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더 크므로,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보건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
 - 홀로 사는 노인은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를 꺼리는 경향
 - 홀로 사는 노인 중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는 41.7%,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90%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각각, 21%, 80%)에 비해 높은 수준⁸⁾

⁶⁾ 통계청(2011). "2011년 고령자통계."

⁷⁾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통계."

⁸⁾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이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정신건강사업과 건강검진사업을 일자리 참여자에게 확대 실시
-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관리 및 우울증 예방교육과 개인정신상담 등을 실시

□ 배우자 사망 후 여성노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측면에서의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

- 자산관리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취약계층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산관리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
- 현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고소득층과 특정 상품 위주로 되어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필요성이 증대

- 공공 측면에서 중·저소득층이 배우자 사별 후 안정적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영국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자산관리정책을 실시하여 고령층 대상의 소득보장체계를 수립⁹⁾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노인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다른 공적연금으로 확대할 필요

-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늦은 나이에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황혼이혼율 변화: 19.1%(2006년)→22.8%(2009년)¹⁰⁾

-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결혼기간에 납부한 보험금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⁹⁾ 영국은 금융자문센터-단순자문-단순금융상품으로 연결되는 중·저소득층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의 기초자문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음(송홍선(2011). "고령화시대 중저소득층 자산관리서비스체계의 설계"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¹⁰⁾ 대법원(2011). 『2011 사법연감』.

- 여성의 소득안정을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에 대한 연금수급권리를 인정
-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이혼 후에 가입자의 배우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
- 이는 공적연금 간 형평성 문제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 감소를 초래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와 다른 공적연금의 형평성 문제>

1999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급여로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들은 분할연금제도가 없어 남편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혼 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아내만이 자신이 받을 연금의 일부를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이 남편 사별 후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중·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 피보험자 연금의 일부만을 지급
 - 피보험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60%를 유족에게 지급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비율은 미국이 100%, 일본은 75%, 캐나다 60%, 독일은 55%
-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액이 낮아 남편 사별 후 유족의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현재 유족연금 수급액 평균은 23만 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

<以上>

주간 금융지표

금리 : 美 국채금리 하락, 국내 증시 약세 및 외국인 선물 매수세 등으로 하락

	11.7	11.8	11.9	11.10	11.11
회사채(AA-)	4.25	4.24	4.23	4.18	4.23
회사채(BBB-)	10.15	10.11	10.08	10.02	10.06
국고채(3년물)	3.41	3.39	3.38	3.33	3.37
콜금리	3.20	3.19	3.29	3.18	3.21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및 유로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

	11.7	11.8	11.9	11.10	11.11
원/달러	1,116.9	1,121.0	1,117.4	1,134.2	1,126.7
엔/달러	78.06	77.70	77.82	77.68	77.12
달러/유로	1.3776	1.3838	1.3547	1.3604	1.3753
원/100엔	1,430.91	1,442.73	1,435.88	1,460.19	1,460.97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이탈리아 정정불안 지속 및 옵션만기일(10일)에 따른 프로그램
순매도 등으로 하락

구 분		11.7	11.8	11.9	11.10	11.11
거 래 소	KOSPI(p)	1,919.10	1,903.14	1,907.53	1,813.25	1,863.45
	거래량(만주)	34,970	40,321	43,462	40,193	29,691
	시가총액(조원)	1,088	1,079	1,082	1,029	1,057
	외국인순매수(억원)	1,348	241	-2,677	-5,037	-2,634
코스닥지수(P)		509.77	507.11	509.41	488.77	500.08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11. 14 ~ 11. 18)

11. 14. (월)

- 국내 보도자료: 2011년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일본, 3/4분기 GDP성장률(내각부)
일본, 9월 광공업생산(경제산업성)

11. 15. (화)

- 국내 보도자료: 2011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0월 소매판매(상무부)
미국, 10월 생산자물가(노동부)
유로지역, 3/4분기 GDP성장률(EU통계청)

11. 16. (수)

- 국내 보도자료: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금융감독원)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0월 소비자물가(노동부)
미국, 10월 산업생산(연준)
유로지역, 10월 소비자물가(EU통계청)

11. 17. (목)

- 국내 보도자료: 2011년 10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지식경제부)
2011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투자 동향분석(금융감독원)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0월 주택착공호수(상무부)
중국, 10월 실질FDI(국가통계국)

11. 18. (금)

- 국내 보도자료: 2011년 3/4분기 가계동향(통계청)
2011년 10월중 어음부도율 동향(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일본, 10월 기업물가(일본은행)

주간 해외 경제일지

(11. 7 ~ 11. 11)

미 주

<p>11. 7.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9월 도매재고지수 전월대비 0.1% 하락, 상무부
<p>11. 8.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0월 수입물가지수 전월대비 0.6% 하락, 노동부
<p>11. 9.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9월 무역적자 전월대비 18억 달러 감소한 431억 달러, 상무부
<p>11. 10.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0월 재정적자 전월대비 419억 달러 감소한 985억 달러, 재무부
<p>11. 11.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3.3p 상승한 64.2, 미시건대학

유 럽

<p>11. 7.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10월 PMI서비스지수 전월대비 1.9p 하락한 43.9, Markit
<p>11. 8.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 9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 통계청
<p>11. 9.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10월 주택가격 전월대비 1.2% 상승, Halifax
<p>11. 10.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9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2.7% 감소, 통계청
<p>11. 11.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통계청

일 본

<p>11. 7. (월)</p> <p>· 일본: 9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2.2p 하락한 91.6, 내각부</p>
<p>11. 8. (화)</p> <p>· 일본: 9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1.4p 하락한 88.9, 내각부</p>
<p>11. 9. (수)</p> <p>· 일본: 9월 경상흑자 전년동월대비 21.4% 감소한 1조5850억 엔, 재무성</p>
<p>11. 10. (목)</p> <p>· 일본: 9월 핵심기계수주 전월대비 8.2% 감소한 7386억 엔, 내각부</p>
<p>11. 11. (금)</p> <p>· 일본: 10월 기업물가지수 전월대비 0.7% 감소한 104.7, 중앙은행</p>

아 시 아

<p>11. 7. (월)</p> <p>· 말레이시아: 9월 무역흑자 전월대비 13억 5000만 링깃 감소한 96억 3000억 링깃, 국제통상산업부</p>
<p>11. 8. (화)</p> <p>· 대만: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22% 상승, 통계청</p>
<p>11. 9. (수)</p> <p>· 중국: 10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통계청</p>
<p>11. 10. (목)</p> <p>· 필리핀: 9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27.4% 감소, 통계청</p>
<p>11. 11. (금)</p> <p>· 홍콩: 3/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4.3% 증가, 홍콩 당국</p>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6	5.2	47.6	0.9	2.2	3.5	5.7	8.3	7.9	5.2	0.03	0.02	1,434.5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3	43.8	8.6	4.7	3.2	..	14.3	11.9	7.0	0.03	0.02	1,124.5
2009	0.3	49.1	-0.2	2.8	3.6	2.2	10.3	7.9	5.8	0.03	0.02	1,682.8
2010	6.2	52.2	3.8	2.9	3.7	9.1	8.7	8.2	4.7	0.03	0.03	2,051.0
2010. 10	4.7	51.8	5.0	4.1	3.3	6.4	7.6	7.2	4.13	0.02	0.01	1,883.0
11		4.9	3.3	3.0	7.4		7.3	4.19	0.03	0.02	1,904.6	
12		5.3	3.5	3.5	7.2		6.9	4.17	0.02	0.01	2,051.0	
2011. 1	4.2	49.2	6.2	4.1	3.8	1.9	6.5	6.6	4.52	0.01	0.01	2,069.7
2		6.6	4.5	4.5	5.0		5.2	4.72	0.02	0.02	1,939.3	
3		7.3	4.7	4.3	4.3		4.7	4.54	0.02	0.02	2,106.7	
4	3.4	47.2	6.8	4.2	3.7	1.1	3.9	4.5	4.54	0.06	0.03	2,192.4
5		6.2	4.1	3.2	3.7		4.4	4.44	0.02	0.02	2,142.5	
6		6.2	4.4	3.3	3.0		4.1	4.40	0.04	0.04	2,100.7	
7	3.4	47.5	6.5	4.7	3.3	..	3.2	4.6	4.48	0.02	0.01	2,133.2
8		6.6	5.3	3.0	4.0		5.6	4.29	0.01	0.01	1,880.1	
9		5.7	4.3	3.0	4.2		5.7	4.24	0.01	0.01	1,769.7	
10	5.6	3.9	4.29	1,909.0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6	105.7	100.5	4.0	3.3	8.0	17.4	9.0	80.1	8.7	55.7	7.6	6.8
2007	112.9	102.0	5.2	0.7	8.7	20.6	23.6	80.3	7.1	19.8	6.1	8.8
2008	114.0	101.6	1.1	1.2	2.5	-14.1	-7.6	77.6	3.4	15.7	-3.1	22.1
2009	119.7	97.1	2.7	4.3	-2.2	-10.3	5.0	74.4	-0.2	7.5	-9.2	13.0
2010	128.3	100.7	6.6	8.8	4.4	11.2	-18.7	81.2	16.7	38.6	19.8	-8.1
2010. 9	128.8	100.4	4.5	5.1	10.7	2.3	-18.1	81.2	2.8	34.3	-6.4	-20.2
10	128.4	99.6	4.1	11.4	-1.4	9.9	-58.8	79.7	13.7	12.4	11.4	3.5
11	128.7	99.5	6.9	10.2	0.9	-9.2	-48.7	80.5	11.4	15.1	2.5	-0.4
12	129.3	99.8	4.3	10.0	2.6	34.9	-22.5	82.2	11.0	32.0	7.2	3.0
2011. 1	130.1	100.8	10.6	20.5	20.4	19.7	-33.9	84.8	14.0	42.4	24.9	14.6
2	129.8	100.6	-0.8	2.8	-11.0	26.1	-16.7	82.2	9.3	37.2	9.2	5.4
3	129.4	100.6	5.2	10.4	2.2	14.4	13.7	82.4	9.4	30.8	8.5	24.3
4	128.9	99.9	5.1	13.5	7.5	6.6	-2.7	80.4	7.1	38.6	5.1	23.5
5	129.5	100.2	6.3	8.0	4.3	-0.8	-22.5	81.3	8.4	33.8	6.5	23.2
6	130.2	100.6	5.8	7.2	3.6	18.5	13.3	82.5	6.6	29.6	15.3	18.6
7	130.8	100.9	5.3	7.1	3.5	-4.4	-34.6	82.1	3.8	23.3	10.1	9.9
8	130.9	100.9	5.2	7.6	3.0	6.0	75.4	80.4	4.7	18.7	21.8	6.8
9	130.6	100.1	2.8	5.3	0.3	3.4	-5.0	81.3	7.0	29.5	12.1	4.5

주: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8,450	11.0	-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6	-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9	363,534	-13.9	323,085	-25.8	37,650	-18.8	190,761	-10.9	86,703	-5.1	46,608	-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	-0.3
2010. 9	39,411	16.2	35,002	17.6	4,149	22.5	21,331	17.6	9,714	16.2	4,172	10.5	1.0
10	43,340	27.6	37,001	21.7	4,778	49.8	23,239	28.8	10,348	26.5	4,953	6.2	-0.5
11	41,261	21.4	38,669	30.9	4,448	27.6	23,338	27.2	10,587	29.7	4,246	-2.5	-2.5
12	44,145	22.6	40,057	21.7	4,350	29.6	24,156	23.3	11,068	21.6	5,172	12.3	-2.8
2011. 1	44,471	44.7	41,886	32.8	4,144	35.5	23,646	31.9	10,030	13.4	6,283	84.1	-4.8
2	38,475	16.5	36,345	17.1	3,812	11.9	22,283	25.4	9,577	20.4	3,810	10.5	-5.7
3	48,043	28.8	45,496	27.9	4,643	14.0	26,975	29.9	11,519	18.0	5,462	16.5	-6.8
4	48,544	23.5	44,188	24.4	5,095	17.4	26,404	24.6	10,811	9.1	5,332	13.4	-8.6
5	47,426	22.0	45,312	30.0	5,172	24.4	26,467	23.8	11,297	17.6	4,609	7.4	-6.6
6	46,747	11.2	44,883	27.3	4,970	11.3	25,670	19.5	11,128	16.5	5,117	-10.1	-7.6
7	48,969	21.1	44,294	25.0	4,652	2.4	28,390	30.6	11,875	20.2	4,215	-15.4	-8.1
8	45,778	25.5	45,409	28.7	4,327	6.8	27,048	29.7	11,622	20.9	4,198	11.9	-9.8
9	46,827	18.8	45,270	29.3	4,798	15.6	27,059	26.9	11,685	20.3	4,591	10.0	..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6	14,038	31,433	-13,332	75	-3,126	-7,588	-23,230	238,956	929.6	781.83	2,252	1,557
2007	21,770	37,129	-11,967	135	-2,388	-17,935	-26,058	262,224	938.2	833.33	3,334	836
2008	3,198	5,170	-5,734	4,435	109	-16,941	-2,406	201,223	1,257.5	1,393.89	3,174	246
2009	32,791	37,866	-6,641	2,277	290	-14,948	49,728	269,995	1,167.6	1,262.82	3,454	653
2010	28,214	41,904	-11,229	768	-174	-19,380	38,552	291,571	1,138.9	1,397.08	3,600	883
2010. 10	5,112.5	5,484.9	-749.9	657.4	-48.1	-5,393.9	7,447.3	293,348	1,126.6	1,390.69	3,600	883
11	1,934.4	3,170.9	-304.5	-690.2	-25.3	-1,286.8	2,227.2	290,231	1,157.3	1,373.41		
12	2,114.4	3,680.2	-1,146.2	-34.5	16.6	-1,610.0	-2,412.2	291,571	1,138.9	1,397.08		
2011. 1	154.7	1,557.9	-1,640.9	703.7	-120.7	-1,725.4	904.6	295,956	1,114.3	1,356.59		
2	1,126.1	1,530.8	-569.1	542.6	-32.7	-1,635.1	-3,004.0	297,667	1,127.9	1,380.96	3,826	863
3	1,329.5	2,754.0	-328.0	-858.4	-28.0	-1,335.8	720.3	298,618	1,107.2	1,331.89		
4	1,277.6	3,327.6	-178.8	-1,581.9	-33.6	-738.8	4,575.0	307,199	1,107.3	1,313.77		
5	2,183.9	1,633.7	15.5	517.3	-49.9	-1,254.7	-1,140.1	305,084	1,080.6	1,335.56		
6	2,030.7	2,699.6	-632.7	239.8	-28.4	-2,144.6	-1,399.5	304,485	1,078.1	1,335.69	3,980	895
7	3,773.6	4,728.0	-690.9	72.3	13.8	327.1	9,258.3	311,031	1,052.6	1,353.22		
8	292.6	371.5	-577.9	699.6	41.5	-1,036.4	-2,923.0	312,195	1,071.7	1,396.81		
9	3,103.3	2,371.8	70.6	543.0	180.2	-2,098.3	1,773.1	303,384	1,179.5	1,536.61		
10	310,976	1,104.5	1,457.99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6	2.7	2.2	3.2	4.6	10,359	18,753	-8,395	5.25	12,463.2
2007	1.9	2.7	2.9	4.6	11,604	19,836	-8,232	4.25	13,264.8
2008	0.0	-3.3	3.8	5.8	13,049	21,396	-8,347	0.25	8,776.4
2009	-2.6	-9.3	-0.3	9.3	10,685	15,754	-5,070	0.25	10,428.1
2010	2.9	5.7	1.6	9.6	12,850	19,349	-6,499	0.25	11577.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백억엔	백억엔	억달러	(%)	
2006	2.0	4.2	0.3	4.1	7,152	6,213	939	0.25	1,681.0
2007	2.3	2.9	0.1	3.8	7,970	6,737	1,233	0.50	1,475.6
2008	-1.2	-3.4	1.4	4.0	7,743	7,327	416	0.10	859.2
2009	-6.3	-21.8	-1.3	5.1	5,076	4,675	401	0.10	907.5
2010	4.0	16.0	-0.7	5.1	6,388	5,593	795	0.10	898.8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3.3	3.6	2.1	8.4	36,072	36,941	-869	3.50	4119.9
2007	3.0	2.9	2.3	7.5	38,736	39,805	-1,069	4.00	4399.7
2008	0.5	-2.1	3.5	7.4	40,025	41,673	-1,648	2.50	2447.6
2009	-4.2	-13.3	0.7	9.4	32,736	33,065	-330	1.00	2964.96
2010	1.8	5.7	1.9	10.0	38,811	39,451	-640	1.00	2792.8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6	3.6	5.8	1.6	10.8	9,044	7,584	1,461	3.485	6596.9
2007	2.8	5.9	2.3	9.0	9,879	8,012	1,867	3.791	8067.3
2008	0.7	0.0	2.6	7.8	10,066	8,426	1,640	1.741	4810.2
2009	-4.7	-15.5	0.3	8.2	8,194	6,908	1,286	0.32	5957.4
2010	3.5	10.0	1.2	7.7	9,822	8,451	1,371	0.294	6714.2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6	2.8	0.0	2.3	5.5	2,436	3,199	-763	5.00	6,220.8
2007	2.7	0.1	2.3	5.4	2,209	3,106	-898	5.50	6,456.9
2008	-0.1	-3.1	3.6	5.7	2,521	3,452	-931	2.00	4,434.2
2009	-4.9	10.1	2.2	7.7	2,277	3,100	-824	0.50	4,412.9
2010	1.4	2.1	3.3	7.8	2,644	3,618	-973	0.50	5,899.9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6	2.4	1.3	1.7	9.2	3,872	4,173	-301	3.53	5,541.8
2007	2.3	1.2	1.5	8.4	4,004	4,414	-409	3.95	5,614.1
2008	0.1	-2.7	2.8	7.8	4,089	4,682	-592	1.87	3,218.0
2009	-2.5	-12.1	0.1	9.5	3,399	3,846	-447	0.37	3,936.3
2010	1.5	5.6	1.5	9.8	3,891	4,440	-548	0.38	3,804.8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12.7	16.2	1.5	4.1	9,693	7,917	1,775	6.12	2,675.5
2007	14.2	17.9	4.8	4.0	12,181	9,562	2,619	7.47	5,261.6
2008	9.6	12.5	5.9	4.2	14,288	11,314	2,974	5.31	1,820.8
2009	9.1	11.6	-0.7	4.3	12,033	10,005	1,998	5.31	3,277.1
2010	10.3	15.3	3.3	4.1	15,768	13,755	2,014	5.56	2,8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6	5.4	6.2	0.6	3.9	2,238	1,996	242	2.75	7,823.7
2007	6.0	5.7	1.8	3.9	2,465	2,161	304	3.38	8,506.3
2008	0.7	-1.8	3.5	4.1	2,549	2,364	185	2.00	4,591.2
2009	-1.9	-8.1	-0.9	5.9	2,040	1,728	306	1.25	8,188.1
2010	10.8	26.4	1.4	5.2	2,744	2,475	255	1.625	8,972.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